

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-Governing Province	보도자료	2026. 8. 10.(월) 배포 즉시 보도 가능		
경제활력국		소상공인과장	정 순	☎ 710-2520
		경영창업지원팀장	김수정	☎ 710-3901

제주 위기업종 소상공인에 300억 원 특별보증...회복 마중물

- 10일 카카오뱅크, 제주신용보증재단과 ‘제주형 위기업종 소상공인 특별보증’ 협약 체결 -
- 카카오뱅크, 제주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협약금융기관 신규 참여·소상공인 금융 접근성 확대 -

- 제주지역 위기업종 소상공인을 위한 300억 원 규모의 특별보증이 10일 가동됐다. 업체당 최대 3,000만 원까지 보증받을 수 있고, 보증료는 소상공인이 한 푼도 부담하지 않는다.
-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 제주신용보증재단 대회의실에서 (주)카카오뱅크, 제주신용보증재단과 ‘제주형 위기업종 소상공인 특별보증’ 업무협약(MOU)을 체결했다.
 - 협약식에는 위성곤 제주도지사와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, 오광석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.
 - 보증 재원은 카카오뱅크가 특별출연한 10억 원에 제주도 출연금 10억 원을 더해 20억 원으로 조성됐다. 제주신용보증재단은 이 재원을 바탕으로 300억 원 규모의 특별보증을 공급한다. 소상공인 1,000여 곳이 지원받을 수 있는 규모다.
- 지원 대상은 ‘제주형 위기업종’으로 선정된 도내 소상공인 가운데, 연 매출액 10억 원 이하 업체다. 업체당 3,000만 원 이내에서 보증하며, 상환은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이다.
 - 위기업종은 도내 소상공인 3만 3,514곳의 경영 데이터를 업종별로 분석해 가려냈다. 신용점수가 10점 이상 떨어졌거나 매출액이 5% 이상 줄어든 업종, 제2금융권 대출잔액이 5%

이상 늘어난 업종 등이 대상이다.

○ 이렇게 추려진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64개 가운데 24개다. 소매업, 도매 및 상품 중개업, 숙박업, 교육 서비스업 등이 포함됐다.

○ 도 소상공인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5일 확정했으며, 선정 효력은 2년간 유지된다. 농·어업 등 1차산업과 건설업 특별보증 대상 업종은 제외된다.

□ 보증심사 기준도 완화했다. 보증료는 카카오뱅크와 제주신용보증재단이 공동 지원해 ‘보증료 제로(0%)’로 운영된다.

○ 제주도는 대출금리의 2.5%를 이차보전으로 지원해 소상공인이 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

□ 신청은 제주신용보증재단의 ‘보증드림’ 앱과 ‘카카오뱅크’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하면 된다.

○ 방문 없이 심사부터 보증 발급까지 앱에서 한 번에 처리돼 자금이 급한 소상공인도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다. 지원은 재원이 소진될 때까지 이어진다.

□ 제주도와 카카오뱅크는 이날 ‘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’ 협약도 함께 체결했다.

○ 카카오뱅크가 중소기업육성자금 협약금융기관으로 새로 참여하면서 취급 금융기관은 16곳으로 늘었다.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비대면 금융서비스로 정책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. 시중은행 중심이던 협약금융기관이 넓어지면서 정책자금 창구에 닿는 길도 늘어난다.

□ 위성곤 지사는 “고금리와 소비 위축, 경기 둔화가 길어지면

서 도내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, 더 촘촘한 맞춤형 금융지원이 필요한 시점”이라며 “제주도는 업종별 경영 위기를 데이터로 분석해 제주형 위기업종을 선정하고, 이들을 대상으로 특별보증에 나섰다”고 설명했다.

○ 이어 “앞으로도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, 금융기관·제주신용보증재단과 긴밀히 협력해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금융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”며 “이번 협약이 도내 소상공인에게 경영 위기를 이겨낼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, 지역 경제의 회복과 도약을 이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”고 전했다.

□ 윤호영 대표이사는 “오늘 출시하는 상품이 내수 침체와 고금리로 큰 타격을 입은 제주지역 위기업종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길 바란다”고 말했다.

○ 또한 “이번 협약이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,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높이고 제주 민생경제를 살리는 다양한 활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드린다”고 덧붙였다.

□ 오광석 이사장은 “이번 협약은 생계형 소상공인들의 경영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버팀목이 될 것”이라며 “제주신용보증재단은 보증심사 완화, 보증료 감면, 비대면 신속 보증으로 현장의 자금 경색을 해소하겠다”고 밝혔다.